

# 이야깃거리

## 미국 캘리포니아 1학년 초등학생의 엄청난 말실수

“엉엉엉....으앙...”

“로지!! 왜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니? 집에 오자마자 왜 우는 거야?”

“앙앙...엄마! 나 너무 무서워.”

“뭐가?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무서워?”

“오늘 교장선생님이 나도 남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 으앙. 나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는 거야? 난 싫은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으앙.”

“어? 그게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야. 우리 이쁜 로지가 왜 남자가 돼? 그런 일 절대 없어!”

그제야 로지는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다 말했다.

“미도레솔 솔레미도~ 덩동덩~”

그날 아침, 쉬는 시간을 알리는 학교 종이 울렸다. 신이 난 로지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긴 방학이 지나고 학교가 개학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로지는 쉬는 시간마다 반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미끄럼틀이나 시소를 타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날따라 다른 반 친구들도 많이들 나와 있어서 로지는 그 친구들과 서로 뒤엎혀서 신나게 놀았다. 그 때, 로지는 작년 1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맥스를 발견했다. 맥스는 남자 아이였지만 여자 아이와도 잘 어울려 노는 아이였고, 그래서 로지와도 종종 놀곤 했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로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친구 이름을 불렀다.

“맥스~~!!! 안녕~!!”

맥스는 로지를 바라봤지만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 당황한 표정으로 로지를 바라보는 맥스를 로지는 의아해 했지만, 손을 내리지 않은 채 한 번 더 친구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누군가가 로지에게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그 아이를 맥스라고 부르면 안 돼! 저 아이는 맥스가 아니라 매기야.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라구!”

“뭐라고? 아...진짜? ...알았어.”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로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데다가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어린 로지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번뇌하고 있는 로지에게 더욱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로지의 초등학교 생활 역사상 처음으로 교장실로 호출을 당한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실로 불러간다는 건, 부모님께 알려야 할 만큼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뜻이었기에 로지는 너무 두려웠다.

“로지, 교장 선생님이 로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불렀어요. 내 방에 들어온 건 처음이지? 너무 무서워하진 말아요.”

“...네...”

“다름 아니고, 아까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 때, 매기를 맥스라고 불렀다던데, 맞아요?”

“네..”

“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작년에 유치원에서 나랑 같은 반 친구여서 그냥 인사하려고 부른 것뿐인데... (홀쩍)”

“일부러 놀리려고 맥스라고 부른 거 아녜요? 그런 거면 잘못된 거예요.”

“맥스는 내 친구라니까요. 놀릴 생각 전혀 없었어요. 맥스를 맥스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맥스가 아니고 매기예요. 더 이상 맥스라고 부르면 안돼요. 맥스는 작년에는 남자 친구였지만, 지금은 여자 친구예요. 매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매기를 여자로 대해야 돼요.”

교장선생님은 거의 1시간 동안 혼란스러워하는 로지를 교장실에 불러들여 놓고 맥스가 왜 매기가 되었는지, 남자인 여자든 자신의 성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또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성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을 이어갔다.

\*\*본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였으며, 이야기 속 이름들은 실제 인물의 이름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실화의 배경이 되는 라클린 학교(Rocklin Academy)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학년 말에 5살 유치원생들에게 트랜스젠더 내용의 어린이 책 두 권을 읽어주고, 부모의 부탁으로 한 남아 원생의 트랜스젠더가 되는 축하기념식을 반에서 치르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학교입니다. 그 날 축하를 받았던 트랜스젠더 원생을 제외한 모든 원생의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아서 많은 부모님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모두가 알듯이, 아이들은 부모가 아주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어디로 튀어 나갈지 모릅니다.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자동차의 두려움도 모른 채 도로변으로 뛰어 나가 부모들의 간을 철렁하게 하는 일도 매우 흔합니다.

이렇듯 부모의 도움과 관심이 없이는 상황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어떻게 트랜스젠더라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 성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동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강제 성정체성과 다양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라클린 학교에선 이러한 교육을 “다양성과 관용”을 배우기 위한 교과과정이라고 부르며 성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부모로써(혹은 미래 부모로써) 내 자녀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나요?